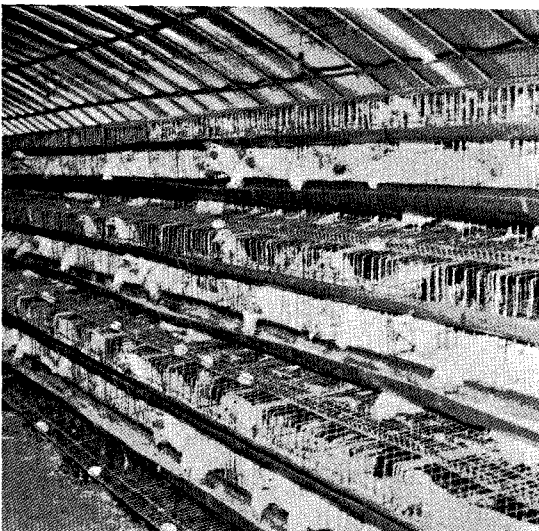


계란

내년 봄까지 전망 흐려

육계

당분간 안정세, 큰기대 어려워



(축협중앙회 조사부)

계란값이 좋았고 금년들어 사료값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나. 전 망

이와같은 사육수수 증가추세는 금년말에 약간 주춤하여 3천 400만수가 되겠으나 내년 3월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3천 450만수, 내년 6월에는 3천 500만수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금년 8월의 사료생산량을 보면 작년 동기보다 15%가 증가하였으며, 초생추 출하량도 작년 동기보다는 55%나 크게 증가하였다.

2. 가격동향과 전망

가. 동 향

금년 9월에는 추석기의 수요 증가에 따라 약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작년동기 보다는 12%가 낮은 수준이었으며, 10월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나. 전 망

연말까지는 하락세를 보이겠으나 내년 봄에는 약간 회복세를 보이겠다. 이와같이 보는 것은 6개월 이상된 수수의 보유량이 79년도의 불황시 사육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봄철에는 행락기로서 제빵제과업체의 수요 증가로 약간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보유량의 과다로 큰 폭의 회복은 없을 듯하다.

I. 산란계

1. 사육동향과 전망

가. 동 향

산란계 사육수는 84년 6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85년 9월에는 3천 499만수(종계 포함)가 되었다. 이는 1년전보다 15.2%가 증가한 것이며 3개월 전보다는 5.1%가 증가한 것이다. 6개월 이상된 산란중인 닭은 1년전보다 14.7%가 증가하였으며, 3개월 전보다는 1.3%가 증가하였다.

이는 79년 불황시의 수수보다 무려 100만 수가 많은 수치로 이와같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

표 1. 산란계수수 관련요인 변동

천 M/T

	'84.5	8	11	'85.2	5	8
총 생산비	104.4	92.9	84.8	102.8	116.7	107.7
어린병아리용	3.9	3.2	3.6	2.5	4.2	3.7
산란용	83.8	74.9	60.1	83.9	94.4	87.1
초생추출하량(천수) (84.5 : 100)	902 (100)	1505 (163.6)	1050 (114.1)	1221 (132.7)	1258 (136.7)	2329 (253.2)

표 2. 계란값 동향

	'84.6	9	12	'85.3	6	9	10	11.7일
대란10개(원)	428	571	497	511	435	502	499	457

표 3. 닭 사육호수 및 사육수수 현황

(천호, 천수)

구분		'85.9 (1)	'85.6 (2)	'84.9 (3)	대비(%)	
					(1/2)	(1/3)
사육호수		347	340	445	102.1	78.0
총사육수수		54,218	52,910	48,040	102.5	112.9
월령별	3개월미만	22,914	23,981	20,607	95.6	111.2
	3~6개월	6,289	4,237	5,616	148.4	112.0
	6개월이상	25,016	24,692	21,817	101.3	114.7
용도별	종계	2,387	2,335	2,163	102.2	110.4
	산란계	32,605	30,956	28,208	105.3	115.6
	육계	17,308	17,134	15,468	101.0	111.9
	일반계	1,918	2,484	2,200	77.2	87.2

II. 육 계

1. 사육동향과 전망

가. 동향

매년 9월에는 6월사육수수보다 큰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금년 9월에는 2% 정도의 미미한 감소를 보였다. 85년 9월의 총사육수수는 1천 923만수로서 1년 전보다 8.7%가 증가한 것이며, 3개월 전보다는 2.0%가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사육수를 크게 증가시킨 이유는 작년도의 육계값이 좋은 편인데다 금년도에는 사료값이 다소 인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 전망

연말에는 수요감소와 겨울철 연료비절감 등을

대비한 감소로 1천 500만수 정도, 내년 3월 이후는 수요증가에 대비한 수수 증가로 3월에는 1천 800만수, 6월에는 2천 400만수 정도로 예상된다.

2. 가격동향과 전망

가. 동향

금년 6월이후 9월까지의 약상승세를 보였으나 작년 가격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며 금년 11월이후부터는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9월에 생산된 육계전기사료를 보면 2만톤 이내로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육수수가 안정권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나. 전망

금후 당분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육계 사육수수 관련요인 변동

	천 M/T						
	'84.5	8	11	'85.2	5	8	9
총 생산량	71.9	49.0	47.7	47.1	60.8	57.7	55.4
전기사료	29.9	20.1	19.6	18.8	25.2	24.4	19.9
초생추출하량(천수)	8,789	7,249	6,126	6,499	9,540	8,309	-
('84.5 : 100)	(100)	(82.5)	(69.7)	(73.9)	(108.5)	(94.5)	-

표 5. 육계값 동향

	'84.6	9	12	'85.3	6	9	10	11.7일
원/kg	743	1177	908	883	899	1030	811	857

이와같이 보는 이유는 육계 사육 실태가 안정권에 진입하였으며 10월이후 산란노계의 강제환후에 따라 산란노계의 도태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 돼 지

1. 사육동향과 전망

가. 동향

1) 총두수 동향

85년 9월 총두수는 1년전(84년 9월) 보다는 5.1%(16만 3천두)가 감소하였지만 3월전(85년 6월)보다는 6.7%(18만 9천두)가 증가하였다. 총두수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돈두수를 보면 85년 9월이 1년 전보다는 4.3%(19천두)가 감소하였지만 3개월 전보다는 1.9%(8천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사육두수는 증가 될 것이다.

2) 규모별 사육두수 동향

85년 9월에 50두미만 규모는 3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비하여 감축되었으나 50두 이상 규모는 증가 경향을 보였다. 특히 500두 이상 규모는 작년 동기에 비하여 31%나 크게 증가하였다.

3) 월령별 두수 동향

85년 9월은 85년 6월에 비하여 2개월령 미만은 17.4% 증가하였으며, 4~6개월령은 20.6%

표 6. 규모별 사육 두수 동향

규 모	'85.9	'85.6	'84.9	증 감 율	
	(1)	(2)	(3)	(1/2)	(1/3)
20두미만	736	746	1065	-1.3	-30.9
20-49	222	228	272	-2.6	-18.4
50-99	361	342	416	5.6	-13.2
100-499	847	756	777	12.0	9.0
500두이상	848	753	647	12.6	31.1

표 7. 돼지 사육호수 및 두수 현황

(천호, 천두)

구 분	'85.9	'85.6	'84.9	대 비 (%)	
	(1)	(2)	(3)	(1/2)	(1/3)
사육호수	291	299	398	97.3	73.1
총두수	3,014	2,825	3,177	106.7	94.9
2개월미만	957	815	957	117.4	100.0
2~4개월	1,005	1,067	1,042	94.2	96.4
4~6개월	569	472	653	120.6	87.1
6~8개월	75	76	100	98.7	75.0
8개월이상	408	395	425	103.3	96.0
암수	382	372	400	102.7	95.5
	26	22	25	118.2	104.0
모든수	421	413	440	101.9	95.7

표 8. 배합사료 생산실적

구 분	'84.5	8	11	'85.2	5	8
총생산량	173	159	168	157	154	152
젓먹이	26	22	29	27	29	28
육성용	73	70	78	70	62	64
모든용	16	15	15	17	17	16

의 증가율을 보여 출하예비돈의 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배합사료 생산 실적을 보면 85년 8월 생산량이 1년전 동기에 비하여 젓먹이는 26.4%, 모든용은 9.4%가 증가 되어 두수 증가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전 망

'83년도 하반기에 총두수가 372만 1천두('83년 9월), 모든수가 60만 9천두(83년 12월)로 증가하더니 돼지가격이 폭락하여 이듬해인 84년초에는 돼지 수매까지 실시하였다. 그후 돼지두수가 완만하게 감소하여 85년 6월에는 282만 5천두로 되었다. 그러나 금년 9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연말에는 9월과 비슷한 수준인 310만두 수준, 내년 3월에는 330만두, 내년 6월에는 350만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증가되리라고 보는 이유는 돼지가격의 장기간 호황에 따른 사육의욕 증대와 모든두수의 지속적 증가 경향과 소값 침체에 따른 돼지료의 전환사육경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가격동향과 전망

가. 동 향

먼저 도축소비를 보면 작년보다는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돼지가격이 작년보다 좋고, 출하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작년 동기 대비를 볼 때 작년 3월, 6월에는 각각 6%, 8%의 감소율을 보였다.

큰돼지(90kg)가격은 85년 5월이후 계속 호황을 지속하고 있어 11월초 기준 15만원선을 보였으며 자돈가격은 85년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여 11월초 기준 4만 4천원선을 상회하고 있다.

나. 전 망

금년말까지는 두당(90kg)15만원선을 당분간 유지하겠으며, 내년 1~3월은 일단 하락세로 전환되어 내년 6월 이후에는 큰폭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연말까지는 강세가 유지되리라고 보는 이유는 출하 적령돈의 안정과 겨울철 및 연말 수요증가

표 9. 돼지도축동향

(천두)

	'84.3	6	9	12	'85.3	6	8
두수	450	435	411	466	423	399	437

표 10. 돼지가격동향

(천원)

	'84.5	7	9	11	'85.1	3	5	7	9	10	11.7일
큰돼지	104	97	110	108	148	102	117	125	134	141	147
차돈	18	19	29	25	33	25	28	32	39	42	44

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내년 6월이후 큰폭의 하락세를 예상하는 것은 돼지값의 장기간 호황에 따른 사육의욕 증대(모돈 및 후보돈 확보), 소값 침체에 따른 돼지전환 사육의 농가 발생, 86수요증가를(86아시아게임) 예상한 사육두수 증식의향, 그리고 돼지값 주기 변동상 내년 하반기가 침체기라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IV. 한육우

1. 사육동향과 전망

가. 동향

81년이후 증가세를 보여온 한육우의 총마리수는 85년 6월 현재 265만 4천두로서 6개월전 대비 15%(33만 6천두)가 증가되었고 1년 전에 비하여 20%(44만 1천두)나 증가되어 사상 최고의 마리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2세이상 큰암소도 85년 6월 현재 112만 4천두로서 6개월전보다 13%(12만 5천두)가 증가되었으며, 1년전보다는 15%(14만 4천두)나 증가하였다.

한편 젖소두수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85년 6월 현재 38만두가 되었으며, 소 전체두수는 303만 4천두가 되었다.

한육우가격은 84년이후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된 것은 10개월 전에 이미 증부된 성빈우에서 송아지가 생산됐기 때문이며, 반면에 쇠고기소비자가격이 산지가격에 따라 기민한 언동이 미흡하였고, 일반경기의 침체 등에 의하여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80~83년까지의 계속적인 소값 호조로 번

식사업이 활발하였고 82년이후 정부의 산지초지 개발 장려 및 복합영농시책에 의한 사육여건의 조성으로 송아지 입식 의욕이 증가하는 등 사육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봄철인 상반기에 송아지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세 미만두수가 84만 4천두로서 1년전보다는 34.4%, 6개월전보다는 23.4%나 크게 증가하였다.

나. 전망

금년말에는 6월보다 6%정도 감소한 250만두로 예상되나 내년 6월에는 금년 6월보다 2%정도 감소한 260만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연말에는 약간 감소하나 내년 6월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말에 감소되리라고 보는 이유는 ① 송아지값 하락으로 번식 및 암소사육기피와 장기간 가격 침체, 전망 불투명, 한우 수매 비축육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등으로 사육의욕이 위축되었으며, ② 학자금 마련 및 각종 부채 상황을 위한 출하량 증대 ③ 돼지·젖소 등으로 대체 사육 발생 ④ 겨울철 조사료 부족, 특히 가을철 장마에 의한 볏짚사료 품질저하와 가격상승 ⑤ 하반기 송아지 생산 감소 시기 ⑥ 하반기 도축두수 증가, 특히 식육업자의 상대적 암소가격저렴에 의한 암소도축 선호 경향 등을 열거할 수 있겠다.

내년 상반기에 소두수가 약간 증가되리라고 보는 이유는 송아지값과 큰소값의 차이가 크며, 쇠고기 수입금지 및 아시아게임의 수요증대를 기대하는 등으로 사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편 성빈우 보유두수가 100만두 수준을 상회하며, 송아지는 상반기에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표 11. 한육우 사육호수 및 두수 현황

(단위:천호, 천두)

구 분	'85.6 (1)	'84.12 (2)	'84.6 (3)	대 비 (%)	
				(1/2)	(1/3)
사육호수	1,099	1,037	1,025	106.0	107.2
총두수	2,654	2,318	2,213	114.5	119.9
1세미만	844	684	628	123.4	134.4
1~2세	604	548	524	110.2	115.3
2~6세	983	870	841	113.0	116.9
6세이상	224	216	221	103.7	101.4
성빈우두수 (2세이상암소)	1,124	999	980	112.5	114.7

2. 가격동향과 전망

가. 동향

83년 10월이후 85년 7월까지 20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소값이 7월 20일부터 회복세를 보여 9월에는 평균가격이 큰소 400kg기준 112만 8천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그후 추석 성수기 이후의 수요감소와 산지가격에 대한 소비자가격의 연동성 미흡으로, 또한 소 수매가 상대적 공급 과잉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값전망의 불투명과 겨울철 대비 출하량 증가 등으로 소값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숫송아지는 큰소소값과 변동 형태가 비슷하나 중암소 및 암송아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나. 전망

금년말까지는 약세를 보이겠으나 내년 봄부터

는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말까지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소 사육의욕이 위축되어 구매력이 감소하는 반면 학자금 마련 및 각종 부채상황을 위한 판매, 겨울철 조사료 부족, 월동준비로 도시가구 쇠고기 소비 부진 등이라고 풀이된다.

내년 봄에는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이유는 소 두수가 현재까지는 많다고 인식되지만 내년도의 아시안게임 및 쇠고기 가격의 상대적 저렴 등에 의한 수요증대를 기대하여 내년도에는 소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축사육의향 조사 결과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년말까지의 소 두수가 감소추세이므로 내년 출하량이 다소 감소될 것이며, 대체육류인 돼지고기 가격이 내년도에도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표 12. 소값 동향

(단위:천원/두)

	'85.1	3	5	7	9	10월10일	19일	30일
큰 소	1289	1193	1099	976	1128	1100	1060	1048
암송아지	517	473	403	312	273	248	239	222
수송아지	574	541	487	389	396	382	366	345

**추백리 검색을 철저히 하여
종계장에서 추백리를 뿌리 뽑읍시다**

(진단액 구입문의는 752-3571·2로)